

 <b>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</b> <small>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</small>	<h1>보도자료</h1>	<a href="http://www.kisti.re.kr">http://www.kisti.re.kr</a>
<b>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</b>		
대전(본원): 대외협력실 이식 042 - 869 - 0960 / 강동기 0967 <b>문의: 서민호 미래정책연구부장(042-869-1034)</b>		
배포번호 : 2016-26 배포일자 : 2016.09.08.(목)	매수 : 보도자료 2매	배포처 : 대외협력실

## ‘오픈사이언스’ 활성화 위한 OECD-KISTI 워크숍 개최

- 오픈사이언스 시대의 사이버 인프라 역할과 중요성 논의 -

-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이하 KISTI, 원장 한선화)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와 함께 ‘오픈사이언스’ 활성화를 위한 국제 워크숍을 9월 9일 KISTI 대전 본원에서 개최한다.
- OECD 글로벌 사이언스 포럼의 프레데릭 스가드(Frederic Sgard) 박사를 초청해 오픈사이언스의 인프라가 미칠 사회·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.
  - 이와 함께 KISTI가 보유한 슈퍼컴퓨터, 초고속 연구망,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스템 등의 사이버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외적 활용 방안을 토의한다.
  - 끝으로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(NICT) 야스히로 무라야마 박사와 화상회의를 열어 과학 데이터 공유와 오픈사이언스의 국제 협력 체계를 토의한다.
- 오픈사이언스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개최된 ‘OECD 과학기술장관회의’에서 주요 의제로 선정된 바 있다.
  - 힉스입자를 발견한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(CERN)의 입자가속기, 중력파를 검출해낸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(LIGO)의 중력파 검출기, 국제열핵융합실험로(ITER) 등 초대형 실험장비를 중심으로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사례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.
- KISTI는 보유한 사이버 인프라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이 CERN의 가속기 실험

과 LIGO의 중력과 검출 프로젝트 등 굵직굵직한 국제적인 실험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.

○ 최근에는 세계기상기구(WMO)의 협업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앞으로 오픈사이언스 확산을 위해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.

□ 한선화 KISTI 원장은 “개방·공유·협업이라는 오픈사이언스의 가치는 이제 과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”며 “KISTI가 보유한 사이버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연구자들이 개방형 연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(끝)